외손녀 따라간 독일여행 【1】

權 五 庠
편집고문

▲ 루터하우스 앞마당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는 필자 권오상씨

필자에게는 유연수柳延受라는 어린 외손녀가 하나 있다. 나이는 이제 두 돌이 지나 33개월짜리다. 지금은 제 부모를 따라 베를린에 가 있다. 오래도록 손자녀를 기다리다, 맨 먼저 태어난 아이라, 놓으면 깨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그렇게 소중히 길렀다. 제가 울면 나도 울었고 제가 웃으면 나도 웃으며, 그렇게 키웠다. 내 집에서 태어나, 거의 두 돌까지는 함께 있었기에 더 정이 깊은지도 모를 일이다. 어디로 가나 가급적 내가 직접 데리고 다녔다. 그러던 아이를 잠시나마 먼 해외로 순식간에 떠나보냈다. 텅 빈 것만 같은 집에 돌아온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먼 하늘만 쳐다본다.

아들이 하나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 가 있고 딸은 금년 2월부터 6개월간 독일에 가 있게 되었다. 해외여행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도 금년에는 부득이 어디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갔다. 해외여행이 마치 유행병 돌듯하는 판에 '자식들이 가 있을 때 다 무릅쓰고 가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는 설득력이 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려면 양쪽 다 가야할 형편이다. 둘 다 금년 8월에는 돌아 올 예정이니,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를 생각한다. 처음에는 아들이 있는 미국을 먼저 갔다가, 그곳에서 독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생각했다. 하지만 비행기 값이 더 많이 들 것같았다. 그러던 차에 독일에 있는 딸로부터 귀여운 외손녀의 재롱이 하나하나 전해져 온다.

작년 말에 외손녀 일가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려다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으로 결정된 모양이었다. 드디어 08년 2월 18일 그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늘 안아주고 돌보며 애지중지 키우던 외손녀, 연수를 먼 외국으로 보내는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파, 공항에서 울 것만 같았다. 모처럼 부모와 멀리 헤어져 있게 될 딸이 먼저 울어버려, 연수를 한때나마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내 애틋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로부터, 연수가 할머니·할아버지를 매우 그리워한다는 메일이 자주 들어온다. 어린 것이 할아버지를 그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까지 스스로 지어 부르고 있다는 메일은 두말할 것 없이 독일행을 우선 생각하게 한다. 나는 이 노래에 '하삐 노래 란 제목을 붙여보았다.

하삐가 있어요, 우리집에요.
지금은 없어요, 독일이니까요.
독일 집에 있으면 하삐가 온대요.

그렇게 어린 것이 이런 노래까지 생각해서 부르고 있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더욱 보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 이 노래가사를 보고 얼핏 생각난 것은 옛날 고조선에서 불렸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구지가龜旨歌라는 시가詩歌가 생각나 견주어 보기도 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재미있는 비교도 될 수 있을 것같아서이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당초에는 독일을 먼저 가더라도 5월 20일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수를 하루빨리 보고 싶은 생각에 앞당기기로 했다. 가는 비행기편도 칼KAL이나 아시아나로 할 것이냐, 독일항공 루프트한자Lufthansa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미국에 있는 아들로부터는 마일리지 문제도 있으니, 마일이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칼로 하고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라고 몇 차례 권유해 왔다. 비즈니스석이 편한 줄은 경험으로 익히 알지만, 이코노미석의 배 값이니 백수인 퇴직자로서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각 항공사에 물었더니 후자가 월등히 쌌다. 더욱이 독일로 가니 독일 항공이 편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든다. 루프트한자의 이코노미석을 예약한 후 표를 샀다. 국제화시대에 국적기國籍機 이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생각했으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4월 29일 화요일은 모처럼 베를린으로 먼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딸로부터 온 주문이 많아, 며칠 전부터 시장에 가 무엇을 사기도 하고 저희 집에 가서 챙기기도 하느라 바빴다. 주로 연수에게 읽어줄 책과 놀이도구다. 자질구레한 것을 모두 챙기느라 바빴다. 리스트를 만들어 들고 다니기까지 했다. 20kg씩 비행기에 부칠 두 개의 짐 보따리를 꾸리고 기내용 가방도 각기 두 개씩 쌌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지만, 해외여행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나는 담담할 수 있었다. 반면 집사람은 좀 들뜨는 것같기도 했다. 또 한 아들이 짐을 싣고 공항까지 전송하겠다는 것을 거절했다. 가정 일로 직장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의 생각 때문이다.

집사람이 아침 7시 반경에 택시를 잡아와 짐을 싣고 가장 가까운 하얏트 호텔로 갔다. 바로 인천공항행 칼 리무진이 왔다. 택시 기사와 호텔 직원이 무거운 짐을 내려다 실어주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출발할 수 있었다. 거의 한 시간을 달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동안 인천공항에는 자주 나갈 일은 있었으나 매번 승용차로 동승자와 담소하느라 주변 경치를 느껴볼 여유가 별로 없었다. 작년에 잠시 일본에 갈 일이 있어 리무진을 타긴 했으나, 그때는 별 감회 없이 그냥 지나쳤었다. 이번에는 몇십년 만에 가보는 유럽이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주변을 새삼 자세히 감상하며 달렸다. 이제 우리도 이만하면 제법 훌륭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의 매번 칼이나 아시아나만 이용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루프트한자 창구를 본 적이 없어 표파는 직원에게 물어 미리 확인해 두었다. 공항 도착 즉시 출국수속을 위하여 카트에 짐을 싣고 루프트한자 창구가 있다는 케이K 창구를 찾아갔다. 그 창구의 정면에는 유나이티드United라는 표지가 있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줄을 지어 북적이고 있었다. 표를 살 때 들은 케이 창구만 의식하다 보니, 미국 항공사라는 것을 얼핏 생각했으면서도 일면 모든 외국항공사를 통합해서 표를 발급하는 곳일 수도 있다고 여기며 어느 줄 뒤에 가 섰다. 집사람이 옆에 물어볼까 하고 나에게 물었으나 그대로 있어 보자고만 했다. 그래도 집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어보니, 뒤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얼른 카트를 끌고 사람 줄을 비집으며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루프트한자 창구가 있었다. 그 곳에도 역시 서너 개의 사람 줄이 만들어져 있다. 가장 짧은 줄을 찾아 별 어려움 없이 출국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것이 바로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실소를 머금고 있는데, 집사람은 줄을 잘못 선 시간낭비로 앞자리를 놓쳤다며 불만을 늘어놓는다. 다시 창구로 다가가 물으니 늦었다는 것이었다. 지난날 국내 비행기를 자주 이용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벽만 쳐다보고 가야하는 불편을 종종 경험했다. 그래서 반드시 맨 앞자리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그대로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기다린다. 앉아서 짐표가 있는지 살펴보니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았다. 다시 창구에 가서 확인하고 재발급을 받았다. 지금껏 해외여행을 하면서 짐표가 빠진 일은 처음이다. 통상 짐을 찾는데는 짐표가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짐표가 없으면 그 짐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게 된다. 더욱이나 해외에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표정 한 점 없는 그 직원을 얄밉게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내색 없이 짐표를 챙겨 받는다.

연이어 여행자 보험에도 들고 집사람의 전화기 로밍roaming도 했다. 값이 의외로 비싼 로밍이 꼭 필요할까도 생각했다. 집 매매관계가 현안으로 되어있으니, 행여 연락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보험가입에서는 70세 이상의 경우 상해보험만 되고 질병보험은 안 된다는 식이었다. 또 나이 문제가 나오니 순간 서글픔이 뇌리를 스친다. 잠시 기다리다가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사거나 구경하는 것도 식상하고 있어, 면세점에는 들어가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기다린다. 집사람은 딸이 사다 달라는 것을 부산하게 찾아다니며 아이쇼핑도 열심히 하는 듯했다. 기다리는 것도 좀 지루해 한발한발 출국게이트 쪽으로 다가가며 번호를 확인한다.

비행기 계류장에는 예상보다 작은 기체가 계류되어 있었다. 장거리 비행에는 늘 보잉 74만을 연상하다가 낮고 작아 보이는 비행기에 좀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그것은 잠시고 유럽 에어버스의 성능이 생각나 안도한다. 좌석 간격이 좁아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데도 마음이 쓰인다. 과거에는 그런 것까지 개의한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잠시 나이로 인한 안타까움 같은 것을 다시 느낀다. 루프트한자는 서양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간격이 좀 넓다는 말도 있었으나 막상 비행기에 올라보니 별 차이가 없었다. 7,8년 전에 런던에 갔을 때는 영국항공BA을 탄 적이 있으나 왕복 다 비즈니스석이었으므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다. 오래 전에 세계일주 여행을 했을 때는 거의 모든 선진국 비행기를 타 봤고 매번 이코노미석을 탔음에도 그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다. 예약된 35번열 창쪽에 집사람을 앉게 하고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속을 뚫고 힘차게 날아오른다. 오래 전에 오스트랄리아 여행시, 아름다운 솜털구름 위를 마치 양탄자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비행하던 칸타스Qantas항공이 생각난다. 이번의 구름 모습은 그때만은 못했으나 그 위를 나는 모습은 비슷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경우 비행기 안에서는 무조건 일어나 걷고 움직여야 한다는 아들과 딸의 말이 생각났다. 비행기가 안전고도를 잡고 좌석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표시를 봤으나 비행 후 두 시간 정도가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걸었다. 물도 자주 마셔야 한다는 아들의 말이 또 생각나 물이 지나갈 때마다 받아 마셨다. 옆자리 아내는 잠에 도취된 듯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여행준비로 피로와 긴장이 쌓인 탓이라 생각한다. 한두 시간이 더 흐른 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깨워서 물을 마시게 했다. 자는둥 마는둥하며 뒤척이다가 깨어보니 어느덧 모스크바 상공을 지난다는 사인이 나오고 있었다. 이어폰을 꽂아 음악을 듣다가, 영화를 보다가 하면서 시간을 흘린다. 에어포켓 한 번 없는 순조로운 비행이다. 어느새 독

7면으로 계속